

진행 혹은 재발성 대장암 및 직장암에서 5-fluorouracil 및 저용량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

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· 외과*

신동복*, 정성권 · 노양원 · 김성권 · 조은경 · 이운기* · 조승연* · 이정남* · 이재훈

5-FU는 진행성 대장암 및 직장암에 유효한 대표적인 약제이나 반응률이 15-20%에 불과하고 생존의 연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. 따라서 5-FU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복합화학요법으로 진행성 대장암 및 직장암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어 왔으나 그 상승효과는 미미한 편이며, 오히려 5-FU의 생화학 조절제인 leucovorin을 함께 투여할 경우 5-FU의 항암효과를 증가시켜 생존연장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많다. 연구자들은 진행 혹은 재발성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5-FU 및 저용량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의 치료효과 및 부작용을 알아보려고 하였다. 1995년 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에 입원하였던 진행 혹은 재발성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5-FU 425mg/m²/day, leucovorin 20mg/m²/day를 각각 5일간 매 4주마다 정주하였다. 전체 대상환자 30명중 1차 치료 후 패혈증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ECOG 전신수행상태가 3으로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하였으며, 3명은 개인사정으로 치료를 거부하여 평가가능한 환자는 25명으로 이들 중 5-FU 및 저용량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다른 항암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는 10명이었다. 진단시 전이장소로는 간 12예, 폐 4예, 뼈 4예, 기타 복막, 뇌, 고환 및 부고환 1예였다. 남녀 비는 17(68%) / 8(32%), 연령의 중앙치는 53세(24세-67세), ECOG 분류에 의한 전신 수행상태의 중앙치는 1(0-2)이었다.

중앙추적기간은 14개월이고 평가가능한 25명의 환자에서 완전관해 2예(8%), 부분관해 6예(24%)로 관해율은 32%이었다. 불변 15예(60%), 진행 2예(8%)로 진행 2명을 제외한 23명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치는 8.5개월(3.5-24개월), 전체 생존기간은 5개월에서 33개월 사이로 중앙치는 17.5개월이었다. Grade III의 백혈구 감소를 보인 1명을 포함하여 9명(36%)에서 백혈구 감소가 나타났고, 혈소판 감소는 3명(12%)에서, 경중의 무형성 골수소견이 1예에서 관찰되었다. 비혈액학적 독성으로 오심 및 구토가 16명(64%)에서, 구내염이 21명(84%)에서 관찰되었고, 이 중 grade III 이상은 5명(20%)이었다. 설사는 16명(64%)에서 관찰되었고, 이 중 grade III 이상은 3명(12%)이었으며, 피부의 파색소 침착이 5명(20%)에서 관찰되었다.

이상의 결과로 진행 혹은 재발성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에서 5-FU 및 저용량 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은 부작용은 비교적 낮지만 수용할 수 있었으며 5-FU 단독요법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여 이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사료되나 3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.

— 212 —

Cisplatin, Epirubicin, Leucovorin, UFT 병합요법의 진행성 위암에 대한 효과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윤소영*, 최인근, 김석진, 서재홍, 최철원, 김병수, 김열홍, 김준석

연구배경 및 목적: 지난 20년간 진행성 위암에 대한 연구 및 항암제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치료 반응 및 생존기간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. FAM 병합요법은 1980년대 널리 쓰였지만 치료반응률이 30%정도이며, 생존기간은 5-10개월로 역시 낮게 보고되고 있어 치료효과가 높은 새로운 약제 및 치료요법이 요구되고 있다.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저용량 5-FU의 장기정주 및 leucovorin을 바탕으로 한 cisplatin, epirubicin, leucovorin, fluorouracil의 병합요법(PELF)이 전체 반응률을 43%에서 56%까지 높게 보고하고 있어 연자 등은 경구투여 위 체내에서 5-FU로 대사되는 UFT가 5-FU의 장기정주와 같은 효과가 있음에 착안하여 Epirubicin, Cisplatin, Leucovorin 병합요법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1996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위암을 진단 받은 환자중 항암치료를 2회이상 받아 평가가능한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방법은 치료첫날 체표면적 당 각각 Epirubicin 50mg, Cisplatin 60mg을 정맥정주 하였고, UFT와 Leucovorin은 치료첫날부터 21일까지 체표면적 당 각각 360mg, 25mg을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이를 4주마다 반복하였다.

결과: 구성 환자의 특징을 보면 연령의 중앙값은 55세였고, 성비는 남자가 25명, 여자가 10명이었다. 신체수행지수는 0,1이 23명, 2,3이 12명이었으며, 병기는 3기가 7명, 4기가 27명이었다. 총 치료 회수는 146회였고, 그 중앙값은 4회였다. 치료반응은 완전관해 2명, 부분관해 17명을 포함하여 전체반응률 52%를 보였으며 생존기간은 아직 그 중앙치에 이르지 못했다.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로 신체수행능력, 병기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. 치료에 다른 독성은 비혈액학적 독성으로 오심, 구토와 점막염 경우 Grade II 이상이 각각 60%, 32%이었고, 혈액학적 독성으로 백혈구 감소증은 Grade III 이상이 31%이었다.

결론: 본 연구에서 경구 UFT, Leucovorin, Epirubicin, Cisplatin의 복합화학요법은 52%의 높은 치료반응을 보였고, 생존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이르지 못했다. 독성의 경우 오심, 구토, 백혈구 감소증, 점막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은 조절 가능한 정도로서 앞으로 장기 추적관찰 및 이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